

이스타 품은 제주항공, 시장 점유율 24%... 항공업계 '빅3' 안착

규모의 경제 vs 승자의 저주... '턴어라운드' 시기 관건

이번 M&A 두고 관심·우려 엇갈려 이스타항공의 부채비율 484% 달해 대내외 변수 지속시 도리어 악재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제주항공에 관심과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함에 따라 3위 국적사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M&A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 확대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코로나19·노 재팬 등으로 업황이 부진함에 따라 적자만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 항공시장이 언제 '턴어라운드' 시기를 맞이하느냐다. 부정적인 대내외 변수가 오래 지속될 경우, 제주항공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월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2일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로부터 이스타항공의 주식 497만 1000주(51.17%)를 545억원에 인수했



제주항공 항공기.

/제주항공

다. 당초 지난해 12월 18일 양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 등이 유로 기존보다 150억원 줄어든 금액에 인수를 마쳤다. 차액 430억원은 지분 취득예정일자인 4월 29일에 전액 납입할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에 따른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A를 통해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업계 '빅3'로 공고히 자리 잡게 됐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시장의 국제선 부문 제주항공과 이스타

항공의 여객 수는 총 1145만5314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적사 가운데 2위인 아시아나항공의 시장점유율 15%와 단 2%포인트 밖에 차이 나지 않는 것이다.

국내선 시장에서는 이미 FSC인 아시아나항공을 앞질렀다. 지난해 전 국내선 여객은 3338만6561명으로 그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644만2854명을 기록해 전체 여객의 약 19%를 차지했다. 반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492만 4734명, 316만6355명을 수송했다. 양사를 합하면 약 24%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에 견주, LCC인 제주항공이 5%포인트나 우세한 것이다.

다만 무리한 인수였다는 업계의 시각도 적지 않다. 인수 직후부터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최근 양사의 영업적자가 확대됨과 동시에 이스타항공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높은 부채비율 등이 자리한다. 지난해부터 노 재팬·홍콩 시위 장기화 등으로 항공업계 전반이 적자전환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항공은 지난해 연간 기준 영업손실 32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이 가진 심각한 부채비율도 악재로 꼽힌다. 이스타항공은 2018년 기준 부채비율이 약 484.4%에 달하며, 자본잠식률은 47.93%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다. 이에 더해 이스타항공은 1년 이내 6769억원, 5년 이내 1조 9487억원 등 2023년까지 총 2조6256억원의 항공기 리스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초의 동종 사업자 간 인수 합병을 이뤘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자칫 제주항공까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관건은 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여부와 부진한 항공업황의 반등 시기다. 최근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 확산하면서 제주항공 뿐 아니라 전 국적 항공사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국내 저비용항공사는 공동 긴급 건의문을 발표해 정부의 조건없는 긴급 금융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노선의 비운항이 장기화될 경우, 제주항공도 그에 따른 여파를 견딜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종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재 효율성 증가에 있어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 이스타항공이 갖고 있던 무형 자산인 운수권 노선들이 다른 곳에 비해 질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며 "그런데 지금 임금금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노선도 좀 의미가 없어졌다. 다만, 다시 반등하는 시기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버티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시너지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꼭 인수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상반기 넘어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면 모든 항공사가 다 재무 리스크가 확대된다. 이걸 제주항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돌입

국토부서 임시운행허가 받아 3월 중순 레벨4 테스트 진행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임시운행 차량.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발걸음을 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모빌리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연구를 넘어 이용자 실생활에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순부터 레벨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차 기술 테스트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레벨 4는 차량 주행 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단계다. 운전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하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5와는 구

분되며, 지정된 구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임시운행은 연구와 실험 단계를 넘어 2400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바로 접목시킨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 T에서 호출-탑승-이동-하차-결제까지 이뤄지는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생활에 가장 빠르게 접목해 상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상용화에 핵심이 되는 ▲도로, 차

량 및 보행자, 신호등과 같은 주행 환경에 대한 '인지 기술' ▲인지 결과를 토대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차로 유지, 차선 변경, 갓길 정차 등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조향, 가속, 감속 등 정교한 '차량 제어 기술'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여기에 ▲차량과 승객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AI 기반 배차 알고리즘' ▲지도상의 차량 위치 추정, 차선 단위의 길안내 등을 통해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기술' ▲차량 위치 정확도를 높이는 '측위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을 더욱 빠르게 고도화하여, 연내 특정 지역에 한해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5년간이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2월 물가 1.1% ↑... 서비스물가 20년만에 최소

코로나 여파로 외식·여행 등 타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여행 등 서비스물가 상승폭이 제한된 가운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에 그쳤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지난달에는 일부 품목에 개별적으로 한정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 민생·경제 대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러한 정책적 요인이 향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80(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한 해 12개월 연속 1%를 밑돌았으나, 전년도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며 지난 1월 상승률이 1.5%로 올라섰다.

다만 2월에는 1월보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폭이 크게 줄면서(2.5%→0.3%) 전체 물가 상승률이 1.1%로 둔화한 모습이다.

특히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치면서 1999년 12월(0.1%) 이후 가장 낮았다.

서비스물가 가운데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 물가가 0.7% 오르는 데 그치면서 2013년 1월(0.7%)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품목으로는 여행과 화훼 등이 꼽혔다.

/한용수 기자 hys@

한일시멘트,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 출시

미장 한번으로 물성 충분... 첨가제 최적화

포장단위 소량화로 효율성 ↑

한일시멘트는 무게는 줄이고, 품질은 높인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레미탈'은 한일시멘트가 생산하고 있는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드라이 몰탈) 제품의 고유브랜드로 시멘트와 모

래, 특성 개선제를 첨가제로 혼합한 후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의 제품으로 현장에서 자동화된 믹서와 펌프를 사용해 물과 혼합, 시공하는 첨단 건축자재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은 기존 40kg에서 포장단위를 소량화해 인테리어 공사 등에 호

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무게를 줄이면서 특성 개선을 위한 첨가제 종류 및 함량을 최적화했다. 일반적인 미장시공은 초벌에서 마무리까지 통상 2회 이상 미장작업이 필요하지만, 이번 제품은 단 한번의 시공으로도 충분한 물성을 얻을 수 있어 공기 단축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한일시멘트는 이와 관련한 특허(제 10-1862594호)도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도로공사, 경북사회복지 모금회 1억 기부

김천시와 코로나 극복 협력

한국도로공사와 경북 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3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공은 대구·경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김천지역 취약계층에는 김천사랑상품권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도공과 김천시는 이달부터 매주 2회에 걸쳐 지역 영세식품업체의 생산품을 조달해 도공 본사 구내식당에 식재료로 납품하고, 김천지역 화훼업체에서 1000만원 상당의 초화류를 구매해 공사 사옥 환경정비에 사용하도록 협의했다.

도공은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매주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해 직원의 인근 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주 1000만원 이상의 지역 경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